

쌍톈즈[雙砬子] 유적

압록강 유역의 선사문화에 영향을 준 랴오둥 반도의 선진 문화



1 쌍톈즈 유적의 위치와 발굴

쌍톈즈 유적은 랴오닝성[遼寧省] 다롄시[大連市] 간징쯔구[甘井子區] 잉청쯔향[營城子鄉] 허우무청이촌[後牧城驛村] 북쪽에 위치한다. 이곳은 남북으로 2개의 산봉우리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어 “쌍톈즈[雙砬子]”라고 불려오고 있다.

이 유적은 1930년대 초 일본 학자들에 의하여 처음 알려졌다. 1963년 지표조사를 실시한 뒤 1964년 6월과 8월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와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동북고고공작대로 구성된 ‘조·중 공동 고고학 발굴대’에 의하여 발굴되었다.

발굴 결과 유적은 주로 북쪽 산의 동남쪽 기슭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물이 출토되는 쌓임층이 6m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4개의 층위에서 시기를 달리 하는 3개의 문화층이 조사되었다. 이들 문화층에서는 17기(基)의 집터와 10기의 재 구덩[灰坑] 그리고 여러 가지 토기와 석기, 뼈연모, 짐승뼈 등 많은 유물이 발굴되었다.

쌍톈즈 유적은 발굴 당시에 가장 아래층에서 주로 흑갈색 토기가 나오면서 채도(彩陶)도 같이 찾아져 유적의 연대를 신석기시대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다쭈이쯔[大嘴子] 유적과 함께 주변에서 조사된

이른 시기의 청동기시대 유적과 문화상(文化相)이 비슷하여 전기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상튀즈 제1기 문화

가장 아래층(제4층)에 자리한 상튀즈 제1기 문화층에서는 집터 3기가 조사되었다.

이들 집터(14호, 15~16호, 18~19호)는 2칸의 방을 가진 반지하식 움집이다. 비교적 잘 남아있는 15~16호 집터를 보면 평면 생김새는 타원형이고 동·서쪽으로 나란히 자리한다. 15호(서쪽)의 크기는 315×200cm이고 16호(동쪽)는 380×170cm로 서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가운데에 막돌을 쌓은 벽이 있는데 높이는 55~65cm, 너비는 60~80cm쯤 된다. 이 돌벽은 방을 서로 구분한 것으로 랴오난[遼南]지역의 청동기시대 집터에서 조사된 특이한 모습인데 당시 사회 분화(가족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집터 안에서 조사된 시설은 북벽 쪽으로 너비 100cm쯤 되는 선반이 있고 기둥구멍, 화덕자리, 나들이 시설 등이 있다. 기둥구멍은 15개가 조사되었는데 큰 구멍 주변에 작은 것이 있어 중심이 되는 큰 것을 튼튼하게 지탱하기 위한 것 같다. 화덕자리는 방마다 1기씩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집터의 바닥을 파서 화덕자리를 만든 다음 그 가운데에 아가리가 넓은 단지를 거꾸로 얹어 놓고 주변에 납작한 판자들을 깔아 놓았다. 이러한 독특한 화덕 시설은 비교 자료가 많지 않지만 그 구조로 보아 불씨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나들이 시설은 너비가 60cm쯤 되었는데 출입 방향은 동쪽 방의 경우 동쪽으로 만들었지만 서쪽 방은 남쪽에 자리하고 있어 서로 차이가 있다.

상튀즈 제1기 문화층에서 조사된 유물은 토기와 석기가 대부분이고 그밖에 뼈 유물과 꾸미개가 있다.

가는 모래가 섞인 흑갈색[細砂黑褐色] 토기가 대부분이며, 홍갈색과 검은색 토기도 있다. 모두 손으로 만들었으며 두께는 0.3~1cm쯤 되어 비교적 얇은 편이다. 또한 토기의 겉면은 갈아서 매끈한 편이며 덧띠를 붙인 것도 일부 있다. 주목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채색 토기가 함께 찾아졌다는 것이다. 색은 붉은색, 황색, 흰색이 조합을 이루면서 삼각무늬, 마름모무늬 등 기하학 무늬가 베풀어져 있다. 채색 토기의 종류는 거의가 항아리와 단지이다.

제1기 문화층에서 조사된 토기의 종류는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목 긴 항아리[高頸罐]를 비롯하여 단지[壺], 굽접시[豆], 사발[碗], 큰 접시[盆], 바리[鉢], 잔[杯], 토기 뚜껑[器蓋]과 받침[器座]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항아리와 단지의 목과 어깨 부분에는 줄무늬나 덧띠가 있다.

이밖에도 흙을 구워 만든 가락바퀴[紡錘車]와 그물추[漁網錘]가 찾아졌다.

석기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돌감을 이용하여 만들었는데 휘록암, 응회암 재질이 많고 세일과 사암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모두 간석기이며 돌도끼[石斧]와 돌자귀[石鑕]가 비교적 많고 돌끌[石鑿], 돌칼[石刀], 돌삽[石鏟], 돌창[石矛], 달도끼[環狀石器], 숫돌[砥石] 등이 있다. 돌도끼는 대체로 길쭉한 네모꼴

이며 두께가 두툼한 편이다. 돌칼은 반달 모양, 긴 네모꼴이 섞여 있는데 구멍은 대부분 2개가 있지만 없는 것도 찾아졌다.

돌자귀나 돌끌, 돌도끼 등은 주로 나무를 가공하는데 사용하는 연모로 당시 사람들이 살림집을 튼튼하게 짓기 위한 상당한 수준의 나무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또한 돌을 이용하여 만든 그물추와 가락바퀴도 조사되었다.

짐승뼈를 사용하여 만든 뼈 연모는 뼈바늘[骨針]과 뼈송곳[骨錐]이 있고 대합 조가비에 구멍을 뚫어 만든 치레걸이 등이 찾아졌다.

3 상륙즈 제2기 문화

상륙즈 제2기 문화층(제3층)에서는 제1기나 제3기 문화층과는 달리 집터는 찾아지지 않았고 재 구덩만 5기(5~8호, 10호)가 발굴되었다. 이들 재 구덩은 모두 남쪽 기슭에 자리하며 평면 생김새는 둥근꼴과 부정형으로 나누어진다. 둥근꼴 재 구덩은 평평한 바닥에 벽은 수직으로 곧게 파 내려간 모습이다. 크기는 10호 재 구덩의 경우 지름이 100cm, 깊이 120cm 안팎이다.

토기는 가는 모래가 섞인 검은색이나 흑회색이 많고 고운 찰흙을 바탕흙으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토기의 겉면은 갈아서 매끈하며 묽음 줄무늬[弦紋]나 줄무늬[劃紋], 덧띠무늬, 젓꼭지 무늬 등이 베풀어져 있다. 토기는 대부분 조각들이지만 그 종류를 보면 시루[甗], 세 발 솥[鼎], 잔[盃], 큰 접시, 굽접시, 항아리, 토기 뚜껑 등이 있다. 그리고 흙으로 빚어 만든 그물추와 가락바퀴 조각도 찾아졌다.

석기는 제1기 문화층에서 발굴된 것과 비슷하며, 달도끼, 작은 돌잔[小石環]이 있다. 이밖에도 짐승뼈를 갈아서 만든 뼈낚시, 뼈송곳, 뼈끌이 있으며, 사슴뿔로 만든 호미[角鋤]도 발굴되었다.

제2기 문화층은 출토된 토기와 석기로 볼 때 존속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며 다음 시기인 제3기에 비하여 문화상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상륙즈 제3기 문화

상륙즈 제3기 문화층(제2층)에서는 집터 14기(1호~13호, 17호)와 재 구덩 5기(1~4호, 9호)가 조사되었다. 이 문화층은 1·2기보다 상당히 두터운 편이고 집터도 서로 겹쳐 있어 오랜 기간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살림을 꾸렸던 것 같다.

집터는 산기슭을 따라 등고선과 나란하게 아주 좁은 범위에 집중하여 분포하는 모습이다. 집터의 평면 생김새는 네모꼴이거나 네 귀퉁이가 줄어든 네모꼴의 모습이다. 집은 반지하 움집으로 가장자리를 따라 돌담을 쌓고 그 위에 나뭇가지와 진흙을 이겨 바른 흙담을 세운 독특한 형태다. 이런 유형의 집터가 다

렌 양터우와[羊頭窪] 유적, 지린 파오쯔옌첸산[泡子沿前山] 유적과 허우스산[猴石山] 유적에서도 발굴되어 서로 비교된다.

이러한 돌담 시설은 청동기시대 집터에서 조사된 특이한 구조로 당시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시설은 방어시설의 하나로 보이며 이들 집터에서 찾아진 간돌검[磨製石劍], 돌창, 큰 돌도끼[石鉞] 등의 무기류는 당시 사회의 갈등 관계를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집터에서는 나들이 시설과 화덕자리가 찾아졌다. 나들이 시설은 대체로 남쪽 벽 옆에 밖으로 돌출되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집터가 자리한 지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덕은 집 안에서 한 쪽으로 약간 치우쳐 위치하며 돌을 바닥에 깔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자리에도 둘러놓아 구획을 한 점이 돋보인다.

이들 집터는 불에 탄 채로 남아 있어 토기와 석기 등 비교적 많은 유물이 찾아졌다. 재 구덩이는 제2기 문화층처럼 남쪽 기슭에 위치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 먼저 평면 생김새는 둥근꼴과 타원형으로 나뉘어진다. 크기는 지름 150cm 안팎, 깊이 50cm쯤 되어 넓으면서 얇은 편이다. 이 재 구덩이 안에서는 매우 작은 토기조각들이 찾아졌다.

제3기 문화층에서 조사된 토기는 바탕흙에 거의 대부분 가는 모래가 섞여 있으며 회갈색 계통이다. 토기의 종류를 보면 항아리 위주이면서 굽접시, 사발, 단지, 잔, 시루, 다족기(多足器), 제사 그릇[簋] 등이 있다. 이들 토기의 겉면에는 가로 방향으로 구획을 나누어 줄무늬, 물결무늬[波狀紋], 깃무늬[羽狀紋], 점줄무늬[點列紋] 등을 새겨 놓았다. 그리고 굽접시의 입술은 바깥으로 바라진 모습이고 제사 그릇의 입술은 곧거나 비스듬한 형태이다.

석기는 모두 갈아서 만들었으며 외날인 돌도끼가 가장 많다. 그리고 돌자귀, 돌추, 돌창, 숫돌, 화살촉, 돌칼, 그물추 등이 있다. 돌칼은 긴 네모꼴, 배 모양[舟型], 빗 모양[櫛型] 등으로 구분되며 구멍은 기본적으로 2개를 뚫었지만 없는 것도 있다.

짐승뼈나 뿔로 만든 연모는 낚시, 바늘, 추, 비녀 등이 있다. 또 돌을 둥글게 갈아서 가운데 구멍을 낸 치레걸이, 조가비를 손질하여 만든 구슬과 치레걸이 등 꾸미개도 찾아졌다.

제3문화층의 유물을 보면 농경과 관련된 돌칼, 돌도끼 등은 물론 그물추, 낚시 등 물고기 잡이 연모도 함께 발굴되어 당시 사람들의 먹거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5 상투즈 유적의 돌덧널무덤

일제강점기에 일본 학자들이 상투즈 유적 주변에서 비파형동검과 검자루 맞춤돌[枕狀器]을 찾게 되면서 무덤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다가 1964년 5월 서쪽 산기슭에서 채석을 하다가 한 곳에서 비파형동검, 항아리, 돌가락바퀴와 달도끼, 돌구슬을 찾았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서 사람 뼈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유물과 사람 뼈조각이 조사된 곳이 낭떠러지 아래에 단(段)이 진 곳이었고 주변에 돌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돌덧널무덤[石槨墓]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6 상투즈 유적의 연대와 의미

이와 같이 상투즈 유적의 세 문화층은 각각 그 성격이 뚜렷하고 층위에서도 구분이 되면서 서로 일정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문화층의 연대를 보면 제1기 문화층은 16호 집터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값이 $4010 \pm 95\text{bp}$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값의 기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금부터 몇 년 전이라는 뜻이다. bp(before the present)는 국제 규약에 따라 1950년을 기준으로 한대로 나와 서기전 1,900~2,100년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여러 문화상은 주변의 위자촌[于家村] 유적의 하층문화, 다쭈이쯔 유적의 이른 시기, 가오리청산[高麗城山] 유적, 진주[錦州] 마오산[廟山] 유적의 이른 시기와 비슷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2기 문화층은 시루, 항아리, 토기 뚜껑, 큰 접시 등 여러 토기들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산둥반도의 웨스 문화[岳石文化]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웨스 문화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값을 가지고 상대연대를 비교하면 서기전 1,400~1,900년쯤에 해당한다.

제3기 문화층은 4호 집터의 방사성 탄소 연대($3120 \pm 90\text{bp}$)와 문화상의 상관 관계가 많은 다쭈이쯔 유적의 여러 연대 측정값을 고려할 때 서기전 1,100~1,400년쯤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자촌 유적의 상층문화, 다쭈이쯔 유적과 마오산 유적의 늦은 시기, 인자촌[尹家村] 1기 문화, 강상[崗上] 유적 등과 같은 시기에 해당한다.

이렇듯 상투즈 유적은 문화상과 시기 문제에 있어 랴오둥반도 지역 청동기문화의 여러 특징과 변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표준 유적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한편 상투즈 유적은 선진문화의 전파와 교류의 길목인 압록강 유역에 위치한 이른 청동기시대의 용천신암리 유적 과 비교된다. 상투즈 제1기 문화의 채색 토기, 제3기 문화의 긴 목 단지, 굽단지 등은 신암리 유적의 청등말래층과 미송리형 토기층에서 조사된 토기 갯춤새와 비슷한 점이 많다. 따라서 상투즈 유적에서 발굴된 여러 자료들은 한반도의 이른 청동기시대 문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같다.